



봄의 향기



정 학 규
한국건설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053-557-6681

한발 한발씩 봄 오는 소식에 따뜻한 햇살은 이제부터 참으로 바빠지겠다.

소별한 계절 끝을 돌아 꽃샘일샘을 넘어온 대로 그 많은 눈 씨알들을 사는 법 따라 순명으로 일일이 매질해 까줘야 할 테니 말이다.

그래야 비로소 겨우내 간혀있던 저대로의 모습이 덩불을 쓰나뉰이갠며 봄빛이글 위해 피어나지 않겠는가?

아직은 추위 뺨에 스치는 바람이 차갑더라도 풀이든 나무든 바람이든 물이든 사람들까지 봄이 오는 길목마다 자신만의 향기들을 뽑아내기 시작하겠지.

매서운 바람이 멈추고 아직 눈뜨지 못한 데지가 조금씩 지기개를 피면 봄소식은 그렇게 온유히고 따쁘지 않게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찬바람 없는 어느 오후 뒤에서 따뜻한 기운으로 가만히 봄의 세감을 포옹하며 잠시라도 즐겨보아라.

들녘의 아지랑이가 하롱하롱 피어나면 메마름 가슴이 일렁이고, 햇살은 마른 풀잎의 작은 몸짓에도 하르르 하르르 참았던 웃음보를 터트릴 것이다.

그리고 나면 여기저기서 겨우내 있었던 이야기꽃을 피우겠지.

그 어느 때가 부서웠던 폭풍한실에 잘린 가지 끝을 감싸며 오래오래 눈물 흘려 피워낸 진한

송진 향치림 찢득찢득 연민이 배어나도록 말이야.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떤 이야기든 나름대로 제취가 묻어도 봄바람은 누구의 것이건 간에 기억하며 온 세상으로 실이 나플 것이다. 그러면 수뻗하게 마른 풀잎들은 능반 비는 바람에게 손을 흔들겠지. 정작 할 말이 남아 있어도 봄이 저만치 온다는 데 어찌하랴.

여기에 내가 간직하고픈 봄 향기까지 한 아름 실렸으면 참으로 좋겠다.

나의 허물 덮어주고 내 부족함을 고운 눈길로 채워주는 누이마냥 조금은 넉넉한까지 주는 그런 삶의 뉘새까지도 스미면 나는 더없이 좋겠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고 밝은 얼굴 그리고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풍길 수 있을 여유로움까지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면 난 고누기 힘든 춘곤증이라도 부여안고 달게 있어 살 것이다.

전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온갖 꽃이 피어나는 꿈까지 영혼이 맑아지도록 안고서 이제 한숨 자도 좋을 봄이 아닌가?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누리다보면 나른해지기도 하겠지.

고양이 허리 늑어나듯 봄별을 한껏 늘려 양지

땀에서 뿜히 뺨고 나면 봄은 저만치 혼자서 아
른아른 실어갈지 모른다.
그래도 그런 여유 그런 향기 그런 사
람
우선 나에게서부터 찾고 싶다.
그리고 그 누군가와 먼저 나누고 싶다.

세상에는 사랑할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욕심
도 많아진다.
또 욕심에 묻혀 살다보면 잃는 것도 많은 법이
기늘.
어릴 적 시골 봄 들녘에서 들었던 종달새 소리
를 회미하게나마 생각해 보려 해도 까마득하기
만 한 것은 나만의 소치는 아닌 상 싶다.
주억들은 쉼 곳을 잃은 지 오래고 매사가 어찌
그리도 바빴던가?
종달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리는 예쁜지.
눈은 까만지.
노래 소리는 얼마나 고운지를 전혀 몰라도 사
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아!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왔다는 말인가.

그런들 저런들 정제가 어렵고 주식시장이 어려
워도 우리는 봄을 맘껏 누리고 싶고 봄이라는
자연 앞에 자유인이 되고 싶다.
기기에나 여유로운 품위까지 너하고 싶다.
내가 봄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봄이 내 안에 머
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터전을 남겨두고 싶은
데 어찌하면 좋은가.
은은히 풍겨오는 봄의 정취를 마음 한쪽 어
곳이나 남아두어도 부담이 되지 않을 정겨운 터
하여 향을 사르지 않고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넉넉한 기쁨과 인간적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 정말 봄이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대숲은 소리를 남기
지 않고,
기러기가 지나가고 나면 연꽃은 그림자를 남

기두지 않는다." 했던가!

오년 맞이하고 가면 말리지 않아 조금도 사물에
얼매이지 않는 성정을 가진 진정한 자유인으로
다시 깨어나고 싶다.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봄이 오면 난 참으로 하
고 싶은 것이 많다.

작은 화분에 꽃고종이라도 심어보고 싶고, 가족
들과 가까운 교외로 봄나들이를 나가 밭고랑 사
이를 헤집고 콧노래를 부르며 냉이라도 캐오고
싶다.

평생 꿈을 안고 살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도 그간 좁고 몹서리치진 현실 속에서 또
삼을 쫓은 봄의 향기라도 잔뜩 묻혀오고 싶은
것이다.

설령 그 향이 아직 너무 미미해서 어느 순간 온

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잊혀 진다 하여도 삭막했던 지난 나날을 헛되이 버려두고 싶지 않아 희망의 새싹으로 벚꽃 밑거름으로 남겨두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을 가진다는 게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은 유독 봄이기 때문만은 아니리라.

봄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과 사랑이 있어 난 마냥 좋다.

버들강아지들이 서로 얼굴을 부빌 때마다 눈웃음이 사라지기 전 내 마음엔 애초부터 따뜻한 그리움이 들어왔다.

아주 오래 전 훨씬 전부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왔건만 그런 마음을 어디고 전달할 길 없어 어떤 이의 마음은 그냥 까냥게 타들어 갈지도 모른다.

서성대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게 봄의 품안에 안겨보자.

웅색하더라도 작지만 나만의 공간을 열어두고 봄을 맞이해 볼 일이다.

헤쳐 나가기 힘든 것 같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길에서도 언제부턴지 모르게 봄은 자리를 잡아 조용히 움트고 있다.

도종환의 시처럼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하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비로소 가득해지는 사랑”

봄은 이제 이렇게 채워갈 것이 많아져서 좋다. 소공원의 정적마저도 청명해진 까치소리로 깨우고 햇볕이 우리를 좋게 만든 후 꽃은 순간순간 부푼 봉오리로 그늘만의 시연과 향이 깃든 명

울을 활기찬 대지 위에 꿈디꿈게 떠올 것이다. 알뜰게도 봄은 이 순간을 오래 남겨두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기다린다는 것이기에 그 바람만큼 환한 웃음만 말없이 선사할 뿐이다.

이제는 봄기운이 완연했던 버드나무 실개천을 따라 목은 기운을 씻어내며 또래끼리 향기로운 봄나물을 캐던 유년시절이 그림다.

그때 함께 불렀던 노랫소리는 사라진지 오래고 옛 눈독길은 추억으로만 회상한지 오래인지라 그 봄나물 캐던 봄 처녀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은 쑥도 할미나 캐다지 않던가.

그러나 그때 바구니 들고 함께 다녔던 여자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화창한 날씨에 곧목길과 논길을 따라 산길로 이어지는 옛길을 춘몽에서 만나도 신차로가 아스팔트길로 변해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 사는지는 알 길이 없고 봄나물의 향취는 지금도 남는다.

보채오는 꽃밭이 바람은 지침없이 불고 또 불어와 삶에 대한 새 강리를 뛰어넘어 어우르는 탄세상으로 능히 봄꽃을 다 피워낼 것이다.

치유처럼 개화의 아픔으로 시작한 아랫녘 꽃소식이 점점 정신을 다 잃게 만들고 이름까지 혼란스럽게 꽃들은 자꾸자꾸 다투어 피어 갈 것이다.

동백꽃, 매화,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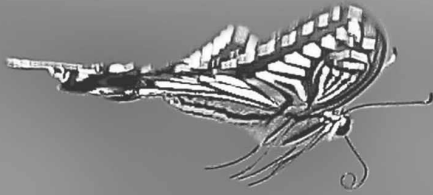
하늘아! 누가 이들을 모아 봄꽃이라 부르리.

봄이면 나에게 언제나 기억나는 “고향의 봄?? 노래가 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풍금소리에 맞추어 이 노래를 합창하던 시절이
제일 꽃다운 시절 모양이다.
나의 동화는 늘 봄의 향기를 있는 대로 죄다 뿌
러가며 저 먼 꿈의 언덕을 넘어서고 있다.
밀과 나비가 아른아른 그 향기에 취해가면서 이
봄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 * 1960년 전북 장수 출생
-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 * 중앙일보: 촛불과 차 한 잔,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달 등 발표
- * 대전일보: 행복한 미소, 코스모스, 기다림,
향수, 방 등 발표
- * 독서신문, 샘터 등에 작품 다수 발표



| 기술표준 2009.3

